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인재 520명 포함 올 2500명 채용

■혁신도시기관 채용 규모 (단위:명)

순번	기관명	채용인원	일반	고졸
1	한국전력	1547	1347	200
2	한전KDN	142	142	0
3	한전KPS	235	125	110
4	한국전력거래소	41	39	2
5	한국농어촌공사	385	385	0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	35	0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	0
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9	0
9	한국인터넷진흥원	16	16	0
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	8	0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	11	0
12	한국콘텐츠진흥원	19	19	0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	14	1
합계		2,465	2,138	313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과 공공 기관들의 올해 채용규모가 윤곽이 드러났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25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신규 채용 인력의 21%를 지역인재 채용으로 선발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과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 520여명 상당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취업문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가능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기관 중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관 13곳의 전체 채용예정 인원은 246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이 21%라는 점에서 최소 517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다.

신규 21% 지역 할당 특별법 시행
한전 고졸 인턴 2백명 등 1547명
한전KPS 235명·한전KDN 142명
농어촌공사 8~9월 385명 등 13곳

우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채용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3월 일반채용으로 1347명에 대한 신규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오는 9월 고졸채용형 인턴 200명에 대한 채용절차에 나서는 등 올해 총 1547명을 채용한다. 4월에는 체협형 인턴으로 9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한전KDN이 올해 3월 신입직원 135명에 대한 원서접수에 나섰고, 오는 5월

시간선택제 신입직원 7명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전KPS는 3월부터 신입직원 125명에 대한 원서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고졸자 채용으로 신입직원 110명도 같은 기간 채용을 진행한다. 총 235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거래소도 이달 중 원서접수에 나서 정규직 38명과 정규직 시간제 직원 1명 등 올해 일반채용으로 39명을 채용, 고졸자 채용도 7월 원서접수를 시작해 2명을 채용하는 등 총 41명을 새로 뽑는다.

이밖에 농림수산 기관 중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채용규모가 가장 컸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8~9월 중 총 385명의 직원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10월 35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할 방침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지난해 말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일반채용으로 9명의 신규직원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4월 16일에 대한 채용절차에 돌입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오는 2월 8일에 대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련 기관 중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0월 채용형 인턴으로 19명을 새롭게 선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11명의 일반직 직원을 채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역시 오는 3월 신규직원 14명 채용에 나선다.

한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된다. 지난해 18%에서 올해 21% 등 매년 3%씩 늘려 2022년 30%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학교급식 공급업체 전담반 설치...2년마다 전수 점검

aT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발전 추진계획 발표...4월 배송차량 전수 등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는 15일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T는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수점검(2년 주기) ▲적합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운영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 협력 강화 ▲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수수료를 활용한 공급업체 지원 ▲지역별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차세대 시스템 재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불성실 업체 근절을 위해 각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2년 주기로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 점검한다. 점검 확대로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공급업체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위장업체 근절과 안전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 배송 차량은 전수 등록하고, 위반사 회원사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급업체 자격 강화를 위해 취급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 보관시설 보유업체만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도도 운영한다.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과 공급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학부모 등과 모니터링 점검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aT 직원들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aT 사이버거래소는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수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aT 제공)

또 공급업체 식재료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교육, 공급업체 eaT 전자계산서 발급 수수료 지원 및 우수급식 종사자 시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국·지역별 공청회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회원사 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업무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수요기관, 공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T는 그 간의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근)는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입사원을 포함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장조직대표로 강진지사장(배석구)과 장성지사 농지은행부장(이정남)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참석 직원들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부정청탁 및 알선 근절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조익문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반부패 청렴특강'을 열고 직원들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는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발견하고 개선해 사랑받는 공사, 청렴한 공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18 만화비평 공모전 한콘진 31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2018 만화비평 공모전'을 열고 오는 31일 오후 3시까지 참가 작품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한콘진에 따르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2018년 결산과 2019년 전망'을 보면 지난해 국내 만화산업 총 매출은 1조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공모전의 모집 분야는 한국 만화·웹툰에 대한 비평으로, 나이·학력·경력에 제한 없이 기성 및 신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출품작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폭력·불법정보 등 소지가 있

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지정 작품에 대한 비평 1편과 자유 비평 1편, 총 2편의 비평문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 작품은 ▲가담항설(네이버·랑또) ▲구름의 이동속도(네이버·김이랑) ▲그녀의 심정(저스툰·seri/비안) ▲심해수(투믹스·이경탁/노미영) ▲어쿠스틱 라이프(다음·난다) 등 5편 중 선택 가능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 50매 이하다.

자유 비평은 한국인 작가가 작업한 국내 연재 작품으로 한정하며 외국 작품은 불인정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이상,

20매 이하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3월 중 이뤄지며 시상 규모는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2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이다. 선정작 6편은 한콘진이 발행하는 만화·웹툰 비평지 '지금, 만화' 2호 본문 및 부록에 심사평과 함께 게재되며, 해당 작가에게는 3호부터 집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만화스토리산업팀 이메일(annie@kocca.kr)이나 전화(061-900-6432)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홍문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위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